

##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김 은 정<sup>†</sup>

김 진 숙

경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30대 성인 27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3개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은 매개변인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외상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이고, 모형 2는 외상이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주고 초기부적응도식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모형3은 모형2의 경로에 정서표현양가성이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이다.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3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모형 평가와 모형수정을 거쳐 채택된 최종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기 외상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기부적응도식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회피대처방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양가성, 회피대처방식, 초기성인기 우울수준

\* 본 논문은 2009년도 김은정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중에서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정,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Tel: 010-4561-6868, E-mail: jusais@naver.com

아동기 외상, 특히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아동기 외상에 관한 개관 논문에서 Terr(1991)는 아동기에 오랫동안 반복되는 외상적 사건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무력감과 낮은 자아개념, 잘못된 인지적 대처방식 등 여러 가지 부적응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우울은 아동기 외상 경험과 연관된 부적응 증상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주요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우울의 발달과 가장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고(Bernet & Stein, 1999; Bifulco, Bernazzani, Moran & Jacobs, 2005; Briere & Runtz, 1988;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아동기 학대 경험과 생애 동안 우울에 대한 위험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일관되게 발견되어 왔다(안동현, 2000; 장화정, 2004; Gibb, Alloy, Abramson & Marx, 2003;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Shields, Ryan & Cicchetti, 2001). 아동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경험은 성인기 우울의 2~5배에 달하는 유병률을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Brown, Cohen, Johnson & Smailes, 1999; Lumley & Harkness, 2007). 또한 아동기에 겪은 학대 경험은 아동기에만 영향을 주기보다 이후 성인기의 우울을 더 강력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iring, Taska & Lewis, 1999; Thornberry, Ireland & Smith, 2001).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입각하여 근래에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구체적

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개입 전략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변인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편향,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자기비난, 자기인식정서, 초기부적응도식 등의 인지적 변인(김은경, 2008; 장정보, 2007; 조은정, 2004; 황은수, 성영혜, 2006; Ericsson, Verona, Joiner & Preacher, 2006; Harris & Curtin, 2002; Lumley & Harkness, 2007; Rose & Abramson, 1992), 정서조절, 정서조절 어려움, 정서인식 어려움, 정서표현 억제, 정서표현 양가성 등의 정서적 변인(김은정, 김진숙, 2008; 김혜인, 2007; Krause et al., 2003; Shields et al., 2001), 대처방식과 같은 행동적 변인(Gibson & Leitenberg, 2001; Krause et al., 2003)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변인들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외상경험은 피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주장(Dutton, 1999; Haapasalo & Pokela, 1999)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기 외상의 경험이 성인기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거나, 우울의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으로서 단일변인의 역할을 검증하는 데 치중해왔다. 그 결과 매개변인들이 어떤 구조적 관련성을 갖고 아동기 외상이 우울로 이어지

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이런 변인들 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 가운데,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인들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포함시키고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인지적 차원의 매개변인으로 근래 부각되고 있는 초기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기부적응도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념과 감정을 말하며, 아동기 동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외상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등 유독한 아동기 경험(toxic childhood experience)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가정된다(Young, 1990). 인지행동이론에서 가정하는 비합리적 사고도 근래 그 발달적 기원으로서 아동기에 형성되는 초기도식을 인정하고 있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Clark, Beck과 Alford(1999)도 초기부적응도식은 자동적 사고나 역기능적 가정보다 훨씬 앞선 초기 발달단계에 형성되는 도식으로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패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학대경험이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아동의 인식과 사고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Kayson, Scher,

Mastnak와 Resick(2005)은 경험적 연구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양식이 아동기 학대경험과 성인기 우울증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혔고, Wright, Crawford와 Del Castillo(2009)는 초기부적응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대학생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초기부적응도식에 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기 외상은 인지적 차원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을 통해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차원의 매개변인으로는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상태를 말한다(King & Emmons, 1990). Linehan(1993)은 개인의 내적 경험이 인정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며 처벌 받는 환경과 정서적 신호가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는 환경을 비수용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이라 부르고, 이런 환경을 정신병리 발달의 핵심으로 보았다. Goldsmith와 Freyd(2005)도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느끼고, 정서에 반응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대적이고 비수용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정서표현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학대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표현양가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Krause et al., 2003)에서 사고억제변인과 더불어 정서표현양가성은 아동기 학대경험과 성인기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동기 외상 경험은 정서적

차원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 사이에서 매개하는 행동적 변인으로는 회피대처방식을 설정하였다. 회피대처방식이란 개인의 수용능력을 위협하는 것을 다루려는 모든 행동적 노력을 포함하며,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과 전략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동기 외상은 인지적, 정서적 패턴뿐만 아니라 행동패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의 발달을 초래한다. 근래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과거 학대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Cicchetti & Toth, 2005; Gipple, Lee & Puig, 2006), 아동기에 성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Gibb, 2002). 아동기 외상이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의 발달을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Harris와 Curtin(2002)은 학대적인 환경에서는 부모에게서 문제 해결에 유익한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성인기에도 문제나 갈등에 대처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회피대처방식과 같이 문제나 갈등상황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적응적인 대처는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악화시키고 그 결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은 행동적 차원에서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기 외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인으로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을 각각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모형을 밝히기 위해, 단일모형 평가와 경쟁모형 평가의 두 가지 방법 중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장되는 경쟁모형 평가(Kline, 2005)를 채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아동기 외상과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양가성, 회피대처방식,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1은 이들 변인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그림 1)이다. 모형 2는 아동기 외상이 먼저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주고 초기부적응도식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모형(그림 2)이다. 모형 3은 모형 2의 경로에 정서표현양가성이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그림 3)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매개변인들 간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 1을 설정하게 된 근거는 앞서 제시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과 달리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에 선행하고,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은 동일한 수준에서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 모형이다. 초기부적응도식의 선행적 영향력에 대한 이런 가정은 초기부적응도식이 사고와 감정 및 행동패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Young(1990)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신념이 정서표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최혜연, 민경환, 2005; Josephs, Williams, Irwing & Cammock, 1994; Pennebaker, 1985)도 이런 가정을 지지한다. 즉,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나 혹은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념은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은 외부의 부정적 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부적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정서표현에 대한 기대나 신념을 내포하는 인지적 도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초기부적응도식이 회피대처방식에 선행한다는 가정과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신념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고(김광은, 2004; Lopez, Mauricio & Gormley, 2001; Schwarzer & Schwarzer, 1996), 개인이 가진 인지도식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며(Pierce & Lydon, 1998) 부정적 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Esther, Susana & Ana, 2007)는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모형 3은 모형 2의 경로에 정서표현양가성이 회피대처방식을 거쳐 성인기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이다. 이는 정서경험 특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대처방식이 매개한다는 연구(Flett, Blankstein & Obertinsky, 1996)와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이 많은 사람은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연구(Emmons & Colby, 1995; Sarason et al., 1991)에 근거한 것이다. 정서표현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얻기가 어렵고, 원하는 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정하고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연구(이승미, 오경자, 2005; 이은상, 2003)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피대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이 회피대처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런 회피적인 대처방식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3개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모형을 구성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모형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외상적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고 심리적 어려움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 심리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바꿀 수 없게 되어버린 과거 경험에서 탈피하여, 변화 가능한 현재의 매개변인을 파악함으로써, 외상에 대하여 적응적인 행동으로 대체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상담적 접근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증상에 관여하는 인지와 정서의 다양한 자동적 과정과 행동적 대처기제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양가성, 회피대처방식과 성인기 우울 수준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기 외상과 우울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관계를 달리하는 세 개의 모형 중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가? 셋째,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에

관한 구조모형은 교차타당성을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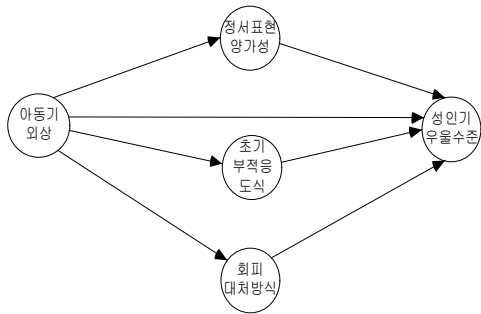


그림 1.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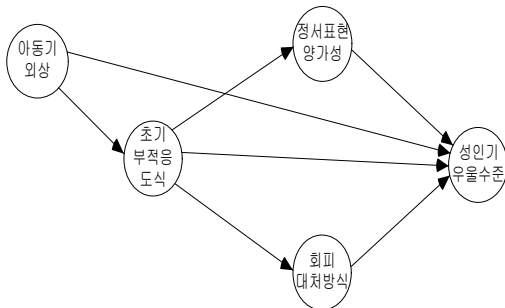


그림 2.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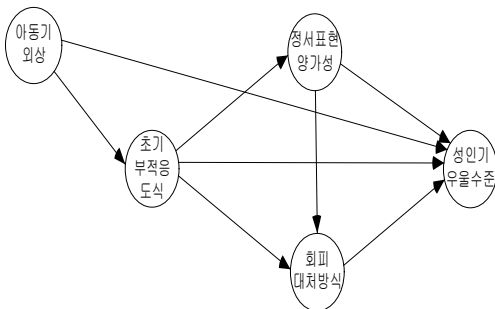


그림 3. 모형 3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외상의 경험을 18세 미만의 경험을 기준(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근거)으로 하고,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초기성인기에 속하는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D광역시와 K중소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성인 3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외 30세 미만의 성인 대상으로 한 설문은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15~20분이었다. 회수된 자료 가운데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명을 제외한 27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23명(46%), 여자가 147명(54%)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5.15세(SD = 2.15)이다.

### 측정도구

#### 아동기 외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정의하였다.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 등(2003)이 개발하고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중에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4가지

하위요인의 사용하였다. 성적학대 하위요인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성적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최근 연구의 경향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와 방임을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묶어 학대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을 묶어 방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식 척도(‘전혀 없음(1점)’에서 ‘자주 있음(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및 방임의 경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Bernstein과 Fink(1998)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Cronbach의  $\alpha$ 계수가 .81~.9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는 .89이고, 학대 및 방임 하위요인은 각각 .86과 .85이다.

1) CTQ 타당화를 위해 D광역시와 K중소도시에 거주하는 20~30세 미만의 성인 27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가 .87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61.1%로 나타났고, 비교적 명확한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PBI, 송지영, 1992), 자존감 검사(Rosenberg, 1965; 이훈진과 원호택, 1995), CES-D 우울척도(Radloff, 1977, 전경구 외, 2001), 편집척도(이훈진과 원호택, 1995)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TQ의 학대와 방임 요인과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의 돌봄과 보호요인과는 유의한 부적상관( $r=-.28 \sim -.57, p<.001$ )을 보였으며, 자존감 척도와도 유의한 부적상관( $r=-.28 \sim -.39, p<.001$ )을 보였다. 우울 척도( $r=.31 \sim .42, p<.001$ )와 편집 척도( $r=.33 \sim .36, p<.001$ )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 초기부적응도식

초기부적응도식은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며,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유형화된 역기능적인 주제와 패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Young(1998)이 개발한 단축형 도식질문지(YSQ-SF)를 Baranoff, Tian, 조성호와 권석만(2006)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절·거절 도식, 손상된 자율성 도식, 손상된 한계 도식, 타인 중심 도식, 과잉경계 도식의 총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6점 Likert 형식(‘전혀 동의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6점)’)으로 문항을 평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초기부적응도식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Baranoff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가 .94로 보고되었고, 하위요인은 .72~.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가 .95고, 하위요인은 .78~.92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정서표현양가성에 있어서 관계관여적 동기와 자기방어적 동기를 반영하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관여적 동기를 측정하는 하위요인(8문항)은 우울, 불안, 적대감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이 낮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최해연, 민경환, 2007; 최해연, 2008)를 근거<sup>2)</sup>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방어적 동기를 반영하는 하위요인(13문항)만을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5점 Likert 형식('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있어서 양가성을 많이 느끼는 의미를 가진다. 자기방어적 동기를 반영하는 하위요인은 단일요인이므로, 2개의 문항군으로 나누어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13개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보다 동질적인 것들로 하되, 요인계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짝을 지어서 두 문항군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13문항의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4.7%였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

2) 정서표현양가성은 전반적으로 부적응적 개인차 변인이지만, 이 변인의 하위차원을 나누어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내 연구에서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심리증상과는 유의하게 높은 부적상관이 있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그 상관이 낮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최해연, 2008). 이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정서표현에 대해 양가적인 것은, 관계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자제하는 차원과 표현결과를 두려워하여 정서표현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후자가 심리적 건강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는데 비해, 전자는 부정적 효과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에 비해 집합주의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에게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개인의 안녕감 간의 관계가 약하다는 (Suh, 1994)연구결과도 이런 문화적 맥락의 역할을 뒷받침해준다. 즉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하는 성향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가 .89로 보고되었고, 자기방어적 동기를 반영하는 양가성 요인은 .88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가 .93이고, 두 하위요인은 모두 .88로 나타났다.

### 회피대처방식

회피대처(avoidance coping)방식은 부적응적 대처방식의 하나로서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과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회피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하고,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yle Indicator: 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사회적 지지추구(social support seeking), 문제해결중심 대처(problem solving), 그리고 회피중심 대처(avoidance)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요인 중 우울과 가장 관련이 높은 회피중심 대처 요인(11문항)만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3점 Likert 형식('전혀 하지 않음(1점)'에서 '많이 했음(3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대처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대처 요인은 단일요인이므로, 2개의 문항군으로 나누어 측정요인으로 사용하였다. 11문항의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0.8%였다. 신혜진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가 .89로 보고되었고, 회피대처 요인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6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대처 전체는 .85로 나타났고, 두 하위요인은 각각 .71과 .74로 나타났다.

### 성인기 우울수준

성인기 우울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일반인들의 우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정신보건 연구원(NIMH)에서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 1977)를 사용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거의 대부분(5~7일, 4점)’의 4점 Likert 형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간주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우울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신체기능저하 영역의 4개 하위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하위요인(신체기능저하·우울정서, 대인우울, 긍정정서(역채점))이 도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이 두 개의 요인에 비슷하게 걸쳐지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16개 문항이 확정되었다. 3개 하위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9.5%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의  $\alpha$ 계수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전체는 .84이고 하위요인들은 .87~.51이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AMOS 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인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3개 모형을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운데  $\chi^2$ , RMSEA, CFI, TLI(NNFI), SRMR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80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SRMR은 .05 이하이면 합당한 모형이고 .10 이하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셋째, Wald W-통계치를 근거로 최종 모형의 불필요한 상관이나 경로를 제거하여 최종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에서 유의한 경로의 효과를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obel 검증방식(홍세희, 2000)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규분포 가정이 심하게 위배된 경우, 최대우도법에서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문수백(2009)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 > 3, 첨도 > 10)에 의하면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과

#####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측정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대 평균이 1.33, 표준편차가 .43로 나타났고, 방임은 평균이 1.50, 표준편차가 .52로 나타났고. 그리고 전체 평균

은 1.42, 표준편차는 .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참여자들의 아동기 외상 정도는, 평균적으로 학대와 방임을 각각 드물게 경험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두 단계 검증방식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아동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양가성, 회피대처방식, 초기성인기 우울수준의 개념에 대한 측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190.85$ , GFI=.909, TLI=.924, CFI=.944, SRMR=.046, RMSEA=.083(90% 신뢰구간=.069~.097).

한편, 아동기 외상 하위요인들은 .84~.64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초기부적응도식 하위요인은 .86~.313의 요인부하량, 정서표현양가성 하위요인들은 .96~.92의 요인부하량, 회피

대처방식 하위요인들은 .89~.88의 요인부하량, 성인기 우울수준은 .84~.80의 요인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은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14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3개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3개의 모형 중 모형 1과 모형 2는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질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비위계적 경쟁모형이고, 모형3은 모형1과는 비위계적, 모형2와는 위계적인 모형이다. 위계적 모형간의 비교는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지만, 비위계적 경쟁모형간의 비교는 AIC와 같은 간접 적합도를 이용하여 AIC값이 낮은 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하여 더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선택된 모형을 다시 모형 3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형 1은 적합도 중 GFI, TLI, RMSEA는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모형 2가 모형 1보다 모든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2의 AIC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모형 2를 채택하였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을 각각 매개로 하여 가는 경로보다, 초기부적응도식이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에 선행하여 성인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3) 초기부적응도식의 모든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01$ ). 그러나 타인중심요인을 제외한 4개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86~.63을 보였으나, 타인중심 요인부하량은 .31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7 이상이 바람직하다(이학식과 임지훈, 2007). 그러나 단순히 통계적 수치 때문에 관찰변인을 삭제하면, 그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문항 수가 축소되며, 또한 선행연구(조성호, 2001; Baranoff et al., 2006)에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과의 일관성도 잃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타인중심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절도, 왜도 (n=270)

구성개념	학대	방임	단절 및 손상된 자아성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 파악경계		양가성		회피대처		신체문화	대인관계	우울	정서
			거리	한계		1	2	1	2	1	2				
학대	1														
방임	.529"	1													
단절 및 거리	.428"	.413"	1												
손상된 자아성	.453"	.392"	.675"	1											
손상된 한계	.328"	.199"	.537"	.604"	1										
타인중심	.133'	.109'	.237"	.308"	.226"	1									
파악경계	.301"	.208"	.565"	.486"	.486"	.348"	1								
양가성1	.195"	.182"	.512"	.495"	.449"	.133'	.488"	1							
양가성2	.220"	.178"	.537"	.521"	.509"	.122'	.484"	.885"	1						
회피대처1	.282"	.139'	.526"	.433"	.480"	.147'	.390"	.559"	.582"	1					
회피대처2	.314"	.189"	.530"	.495"	.459"	.073'	.332"	.560"	.565"	.770"	1				
신체문화	.300"	.208"	.511"	.507"	.455"	.171"	.324"	.495"	.522"	.612"	.617"	1			
우울감정	.400"	.313"	.600"	.479"	.366"	.145'	.383"	.444"	.489"	.551"	.543"	.673"	1		
대인관계	.400"	.313"	.600"	.479"	.366"	.145'	.383"	.444"	.489"	.551"	.543"	.673"	.673"	1	
우울	.400"	.313"	.600"	.479"	.366"	.145'	.383"	.444"	.489"	.551"	.543"	.673"	.673"	.673"	1
금강경서	.125'	.248"	.261"	.266"	.099"	.030'	.187"	.205"	.202"	.092"	.150"	.172"	.173"	.173"	1
M	1.33	1.50	1.90	1.91	2.42	2.28	2.60	2.27	2.74	1.50	2.22	1.67	1.79	1.79	2.38
SD	.43	.52	.69	.37	.77	.84	.85	.86	.90	.42	.62	.62	.54	.54	.55

\* p < .05 \*\* p < .01

표 2. 모형1, 모형2, 모형3의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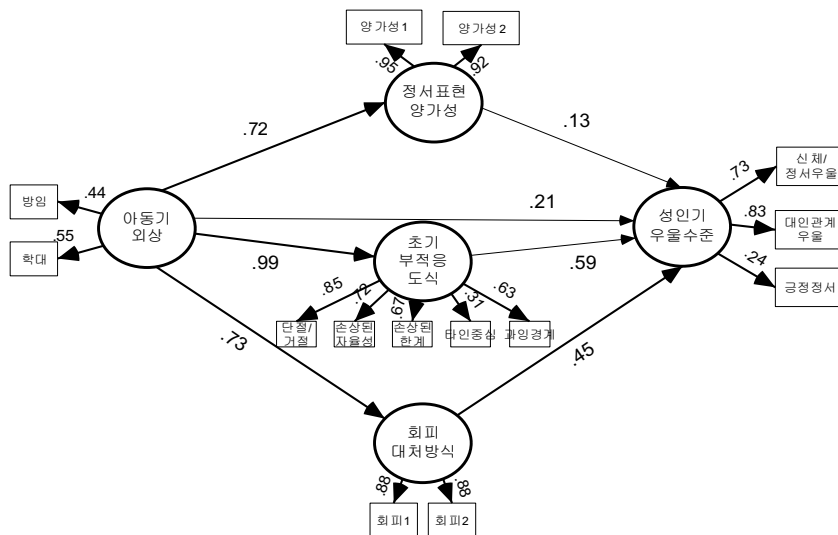
모형	모수	$\chi^2$	$\chi^2/df$	GFI	TLI	CFI	SRMR	AIC	RMSEA (90% 신뢰구간)
모형 1	35	234.1 (df=70)	3.345	.888	.893	.918	.066	304.13	.093 (.080 ~ .107)
모형 2	35	190.9 (df=70)	2.278	.907	.921	.939	.057	260.98	.080 (.067 ~ .094)
모형 3	36	169.1 (df=69)	2.450	.916	.934	.950	.051	241.08	.073 (.059 ~ .088)

모형2 와 모형 3의  $\chi^2$  차이검증

A : B

$$\chi^2_B - \chi^2_A = 21.8^* \quad df_B - df_A = 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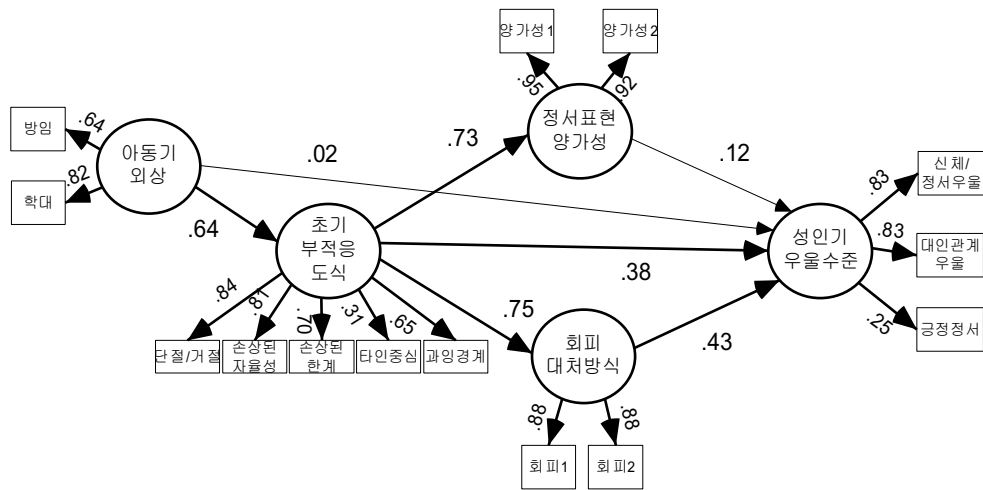
————— 유의한 경로 ( $p < .001$ ). —————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4. 모형 1 검증 결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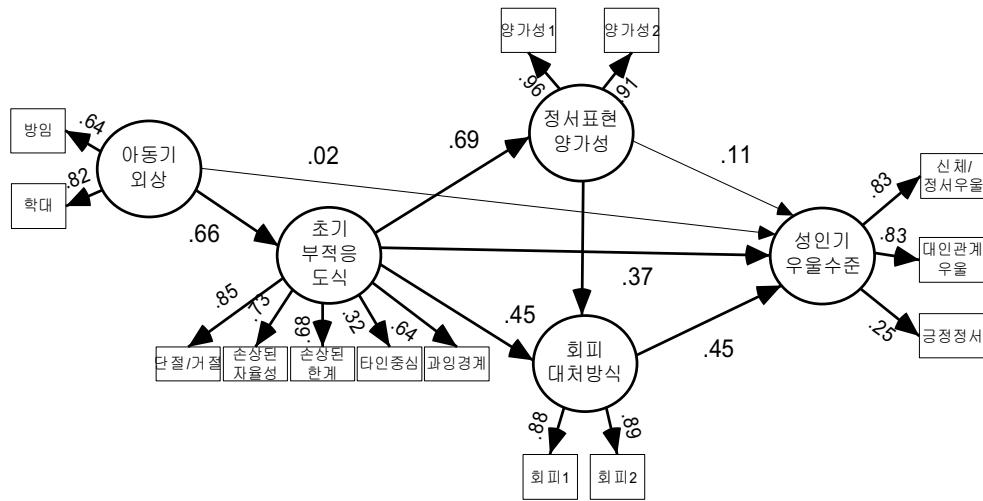
다음으로, 모형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검증된 모형 2를 모형 3과 비교

한 결과, 모형 3이 모형 2보다 전반적으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모형의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의 차이는



————— 유의한 경로 ( $p < .001$ ). ————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5. 모형 2 검증결과



————— 유의한 경로 ( $p < .001$ ). ————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제시된 모수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6. 모형 3 검증결과

자유도 1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chi^2$  분포 임계치 3.84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형 3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부적응도식이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에 선행하여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정서표현양가성이 회피대처방식을 통하여 성인기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개의 매개모형 결과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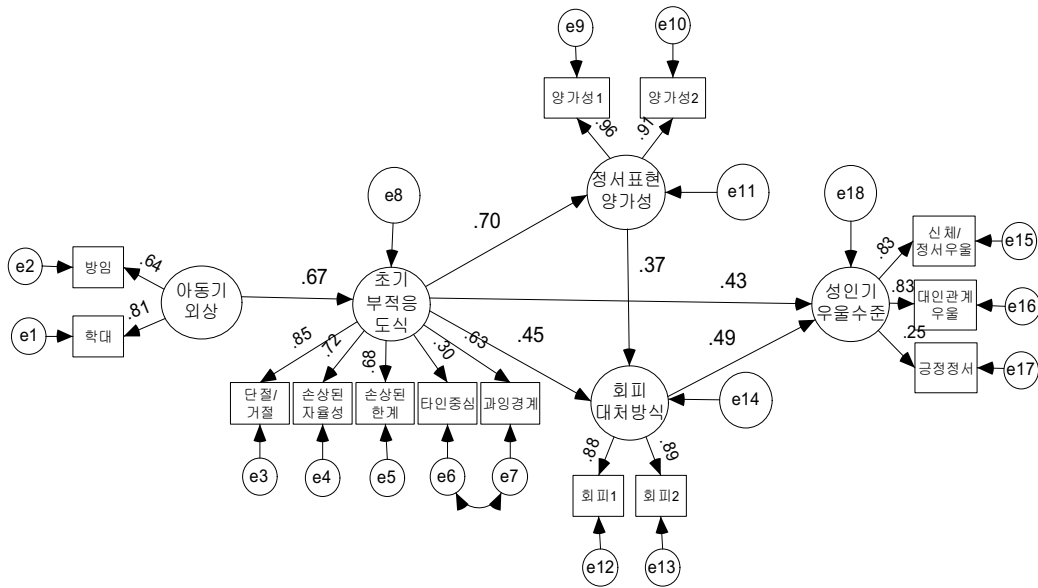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 3이 적합도 평가에서는 양호하였으나,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t=.197$ ,  $\beta=.016$ ,  $p>.05$ )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양가성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t=1.446$ ,  $\beta=.110$ ,  $p>.0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설정된 일부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볼 때, 설정된 이론모형이 더 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문수백, 2009). 이에 최종 채택된 모형3에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와 정서표현양가성과 성인기 우울수준간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모형검증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3의 유의하지 않은 두 개의 경로만 제거하여도, 적합도가 양호하며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그

4) 모형분석 결과는 수정지수를 산출한다. 수정지수를 보면 한 측정변인을 원래의 잠재변인 외에 다른 잠재변인에도 연결하면 적합도가 얼마나

러나 e6과 e7 간에 공분산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그림 7). e6은 자기를 억압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는 타인중심 부적응 도식의 오차항이며, e7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부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과 충동을 통제하는 과잉경계 부적응 도식의 오차항이다. e6과 e7은 한 잠재변인의 두 측정변인들의 오차항이므로 공분산을 설정하여도 타당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다. 잠재변인의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남에게 지나치게 맞추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이 두 개의 오차항을 연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들 오차항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수치 변화량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이다. 모수치 변화량은 모수의 기대 변화량으로서 이것이 양수인 것은 이 관계가 전체적인 모형에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노형진, 2005).

위와 같은 근거로 모형 3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고, 초기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인 타인중심 요인의 오차항과 과잉경계 변인의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설정한 최종모형의 모수치는 그림 7과 같다. 모형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2개의 경로를 삭제하고,

향상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혹은 두 개의 다른 잠재변인의 오차항을 연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정지수가 3.84보다 크거나 혹은 보수적으로 10.0보다 큰 경우 해당 항목들을 연결함으로써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수정지수는 한 잠재변인의 두 측정변인들의 오차항을 연결하도록 제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연결하더라도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비해 타당성이 저하될 확률이 낮다(이학식, 임지훈, 2007).



(모든 경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7. 최종모형

표 3. 모형3과 최종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검증

모형	모수	$\chi^2$	$\chi^2/df$	GFI	TLI	CFI	SRMR	RMSEA (90% 신뢰구간)
모형3	36	169.1 (df=69)	2.450	.916	.934	.950	.051	.073 (.059~.088)
최종모형	35	156.6 (df=70)	2.236	.921	.944	.957	.049	.068 (.054~.082)

e6과 e7을 공분산 관계로 연결한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추정 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에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알아 보았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Preacher와 Hayes (2004)가 제시한 방법<sup>5)</sup>에 따라 수 입력을 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최종모

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에서 매개변인의 영향

$$5) Z_{ab} = \frac{a \times b}{\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 s_a^2 \times s_b^2}}$$

Sobel 검증 중 Aroian 검증을 실시함. 여기서 a 최초의 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 b 매개변인에서 최종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 sa는 최초 변인의 표준오차, sb는 최종 변인의 표준오차. 검증결과  $Z > 1.96$  혹은  $Z < -1.96$ 일 때, 매개효과는 .05수준에서 유의함.

표 4.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매개변인의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Z
아동기 외상	→ 초기부적응도식	→ 성인기 우울수준	-	.522	.522	4.18*
아동기 외상	→ 초기부적응도식	→ 정서표현양가성	-	.466	.466	6.38*
초기부적응도식	→ 정서표현양가성	→ 회피대처방식	.453	.260	.713	4.41*
정서표현양가성	→ 회피대처방식	→ 성인기 우울수준	-	.184	.184	3.77*
아동기 외상	→ 초기부적응도식	→ 회피대처방식	-	.475	.475	4.25*
초기부적응도식	→ 회피대처방식	→ 성인기 우울수준	.432	.352	.784	3.98*

\*  $p < .05$ , 모수치는 표준화계수임.

표 5. 교차타당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모수	$\chi^2$	$\chi^2/df$	GFI	TLI	CFI	SRMR	RMSEA
교차타당화 모형	35	142.3 ( $df=70$ )	2.032	.925	.957	.967	.039	.064 (.049~.079)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개발된 모형의 일반화를 위하여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52명의 다른 표본을 활용한 최종모형의 교차타당화 모형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적합도 지수가 모두 기준치인 .90 이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고, RMSEA 역시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므로, 타당화 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최종모형은 다른 집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이 매개하는 3개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외상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한 그러한 초기부적응도식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심화시키며 동시에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도 성인기 우울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은 우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모형에서 확인된 변인들 간의 경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은 성인기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안동현, 2000; 권혜수, 2003; Ericsson et al., 2006; McGee, Wolfe & Wilson, 1997; Spertus, Yehuda, Wong, Halligan & Seremetis, 2003). 한편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매개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들(Holahan, Moos, Holahan, Cronkite & Randall, 2003; Mitchell, Cronkite & Moos, 1983; Valentiner, Holahan & Moos, 1994)은 매개변인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변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른 매개변인들이 개입됨으로써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초기성인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Yang과 Clum(200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에, 인지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며, 이를 통해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역기능적 태도가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Gibb & Alloy, 2006; Gotlib & Hammen, 1992)와도 부합한다. 학대의 경험이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결국 우울에 이르게 한다는 국내연구(김은경, 2008)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외상 경험이 부적응도식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도식이 성인기 우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선행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들이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고(Krause et al., 2003),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정서표현에 있어서 양가적인 상태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최해연,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아동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도식이 이후 반응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도식이론(Young, 1990)과 대상관계이론 및 애착이론(Hamilton, 1988)의 관점에 부합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도식은 세상과 타인에 대해 기대하고 반응하는 틀이 되어, 환경을 지각하고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 시절 형성된 표상이나 도식은 감정 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지와 기대로 작용하여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초기부적응도식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Gross & Levenson, 1997; King & Emmons, 1990; Mongrain & Zuroff, 1994; 최해연, 2008)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국내연구에 정서표현양가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김경미, 2006), 정서표현양가성이 특성불안에만 설명력을 가지고 우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승미, 오경자, 2006)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서표현양가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다른 심리적인 요인들의 매개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정서표현양가성이 전반적으로 적응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인 차이의 관점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개인의 안녕감 간의 관계가,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 학생들에 비해 집합주의 문화권인 중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더 약하게 나타난다는 연구(Suh, 1994)는 이런 관점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한다. 서구문화에 비해 한국문화는 관계중심주의 성격이 더 강하고, 타인에 대해 참아주고 배려하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고, 이런 절제와 인내가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최상진, 정태연, 2001). 관계성과 자기표현 절제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감될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적 영향력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과 우울 간을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변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대처방식이 정서표현양가성과 우울수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경험 특성과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Gohm & Clore, 2002)와 정서표현에 있어 갈등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정하고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Emmons & Colby, 1995; Sarason et al., 1991)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것 자체가 개인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정도보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회피대처방식과 같은 행동적 변인들의 매개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동기 외상이 회피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이 매개하고, 또한 초기부적응도식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피대처방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경험은 초기부적응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런 초기부적응도식은 회피대처방식을 초래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인지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회피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Pierce & Lydon, 199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에 초기부적응도식과 회피대처

방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단절과 거절의 초기부적응도식이 배우자의 폭력과 문제를 회피하는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이러한 대처방식이 도식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Esther et al., 2007)와 일치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도식과 결과를 통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 신념이 낮거나 초기부적응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회피적인 대처방식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우울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종합해보면,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외상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이러한 초기부적응도식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심화시키며 동시에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도 성인기 우울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은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경험한 과거의 외상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기보다는,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임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우울과 같은 현재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해를 돕고 상담 개입 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변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상

담실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초기부적응도식이 정서표현양가성과 회피대처방식에 선행하여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내담자의 우울 경험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내담자의 우울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선 내담자의 초기부적응도식을 확인하고 이것이 우울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및 회피대처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부정적인 인지도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가 우울을 호소할 경우, 초기부적응도식과 함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진솔한 정서표현에 대한 만성화된 갈등과 이로 인해 문제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이 어떻게 우울을 촉발하거나 유지시키는지를 면밀하게 탐색함으로써 내담자가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우울에 기여하는 자신의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좀 더 적응적인 대안적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표현양가성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회피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의 우울 경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것이 회

피대처방식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서표현양가성 이전의 해석단계인 초기부적응도식에 개입하거나, 혹은 좀 더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훈련하는 것으로도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의 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아동기 학대나 방임의 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시간적 순서에 의한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매개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모든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또한 본 연구는 횡단 및 회고적 방식에 의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힌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D광역시와 K중소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성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전체 성인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성인대상자의 연령대를 넓히고 지역도 확대한 좀 더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집단이 아니라 외상경험이 많은 임상집단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지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가 실제 아동기 외상 경험보다 낮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응답자

의 기억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학대나 방임의 경험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바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상 경험이나 부적응도식, 정서표현의 어려움, 대처방식,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교적 좋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다른 측정도구들을 포함시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수준 간에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양가성, 회피대처방식의 세 가지 변인의 매개효과만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우울수준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외상의 경험에까지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기 힘들다. 사람의 외상에는 양육자에 의한 학대와 방임 이외에 가정폭력의 목격이나 범죄피해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외상의 경험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니라 아동기 외상경험을 비교적 낮게 보고한 일반인집단에서도 아동기 외상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 정서, 행동 차원의 매개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 내담자들의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과 이들의 부모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도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해수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은 (2004). 성인애착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08).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05- 1520.
- 김혜인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인식의 어려움,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형진 (2005). Amos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한울출판사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89.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14(4), 919-935.
- 안동현 (2000). 아동학대 피해자 상담. 한국아동복지학회 제4회 워크숍 자료집, 3-16.
-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13-128.
- 이은상 (2003). 정서표현갈등, 사회적 지지각각, 대처방식,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김경미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이학식, 임지훈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법문사.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장정보 (2007). 대학생들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비판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화정 (2004).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한국성폭력 발간자료, 2004(1), 79-89.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은정 (200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

- 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66-1075.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anoff, J., Oei, T. P. S., S. M. Kwon., & Cho, S.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133-140.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rnet, C. Z., & Stein, M. B. (1999). Relationship of childhood maltreatment to the onset and course of major depression in adulthood. *Depression and Anxiety*, 9, 169-174.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ivalia, T., Stokes, J., Handelsman, L., Medrano, M., Desmond, D., & Zule, W.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169-190.
- Bifulco, A., Bernazzani, O., Moran, P. M., & Jacobs, C. (2005). The Childhood Experience of Care and Abuse Questionnaire (CECA.Q): Validation in a community seri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563-581.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mailes, E. M. (1999). Childhood abuse and neglect: Specificity of effects on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nd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12), 1490-1496.
- Cicchetti, D., & Toth, S. L. (2005).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409-438.
- Clark, D. A., Beck, A. R., & Alford, B. A. (1999).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Wiley.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 431-447.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Ericsson, N. S., Verona, E., Joiner, T., & Preacher, K. J. (2006). Parental verbal abuse and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in adult in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71-78.
- Esther, C., Susana, C., & Ana, E. (2007). Cognitive and coping mechanism in the interplay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on. *Anxiety, Stress, & Coping, 20*(4), 369-382.
- Feiring, C., Taska, L. S., & Lewis, M. (1999).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3*, 115-128.
- Flett, G. L., Blankstein, K. R., & Obertinsky, M. (1996). Affect intensity, coping styl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0*, 221-228.
- Gibb, B. E.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2), 223-246.
- Gibb, B. E., & Alloy, L. B. (2006). A prospective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 264-274.
- Gibb, B. E., Alloy, L. B., Abramson, L., & Marx, B. (2003). Childhood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specific inferences: A test of Rose and Abramson's(1992) extension of the hopelessness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17*(6), 917-931.
- Gibson, L. E., & Leitenberg, H. (2001).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undergraduate women in methods of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The impact of cumulative childhood stressors and abuse. *Child Abuse & Neglect, 28*(2), 181-192.
- Gipple, D. E., Lee, S. M., & Puig, A. (2006). Coping and dissociat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Reporting childhood abuse experience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9*, 33 - 46.
- Gohm, C. L., & Clore, G. L. (2002).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well-being, coping, and attributional style. *Cognition and Emotion, 16*(4), 495-518.
- Goldsmith, R., & Freyd, J. J. (2005). Awareness for emotional abuse.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 interpersonal integration. New York: Wiley.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Haapasalo, J., & Pokela, E. (1999). Child-rearing and child abuse antecedents of criminal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 107-127.
- Hamilton, N. G. (1988).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Northvale, NJ: Jason Aronson.
- Harris, A. E., & Curtin, L. (2002). Parental perception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405-416.
- Holahan, C. J., Moos, R. H., Holahan, C. K., Cronkite, R. C., & Randall, P. K. (2003). Drinking to cope and alcohol use and abuse in unipolar depression: A 10-year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159-165.
- Josephs, S., Williams, R., Irwing, P., & Cammock, T. (1994).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869-875.
- Kayson, D., Scher, C. D., Mastnak, J., & Resick, P. (2005). Cognitive mediation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depression in recent crime victims. *Behavior Therapy*, 36, 235-244.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ause, E., Mendelson, T., & Lynch, T.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 Abuse Neglect*, 27(2), 199-213.
- Linehan, M. M., (1993) *Cognitive -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opez, F. G., Mauricio, A. M., & Gormley, B.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59-464.
- Lumley, M. N., & Harkness, K. L. (2007). Specificity in the relations among childhood adversity,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ymptom profiles in adolescent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639-657.
- McGee, R. A., Wolfe, D. A., & Wilson, S. K. (1997). Multiple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ts'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131-149.
- Mitchell, R. E., Cronkite, R. C., & Moos, R. H. (1983).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33-448.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Pierce, T., & Lydon, J. (1998). Perceived available support as a relational schema: Testing the buffering effects of activated and chronic interpersonal expec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441-144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 D. T., & Abramson, L. Y. (1992). Developmental predictor of depressive cognitive style: Research and theor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4, 323-349.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chwarzer, R., & Schwarzer, C. (1996). *A critical survey of coping instruments*. In M. Zeidner, & N. M.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 (pp. 107-132). New York: Wiley.
- Shields, A., Ryan, R. M., & Cicchetti, D. (2001).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caregivers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predictors of maltreated children's rejection by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21-337.
-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an, S., & Seremetis, S. 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 1247-1258.
- Suh, E. (1994). *Emotion norms, values, familiar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Terr, L. C.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Thornberry, T. P., Ireland, T. O., & Smith, C. A. (2001). The importance of timing: The varying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multiple problem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957-979.
- Valentiner, D. P, Holahan, C. J., & Moos, R. H. (1994). Social support, appraisals of event controllability, and coping: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094 - 1102.
- Wright M. O., Crawford E,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Neglect*, 33, 59-68.
- Yang, B., & Clum, G. A. (2000). Childhood stress leads to later suicidality via its effect on cognitive function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83-199.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8).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Available in electronic form at <http://www.schematherapy.com/id54.htm>.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 2010. 06.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20  
게재결정일 : 2010. 08. 13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Kim Eun jung**

**Kim Jin so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ee competing models were compared and evaluated in order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f interest. CTQ-SF, YSQ-SF, AEQ, CSI, CES-D were implemented to 270 early adults(123 males and 147 females) between 20 and 30 years of age. The direct effects of childhood trauma on adulthood depression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Early maladaptive schemas, however, had direct effects on adulthood depression. It also had indirect effects on adulthood depression mediated by avoidance coping styl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howed an indirect relation to adulthood depression mediated by avoidance coping style.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voidance coping style, early adulthood depression.